

漢代婦女眉黛  
— 靑黛를 중심으로 —

김 영 재

대전대학교 의류직물학과

**A Study on the Women's Eyebrows in Han Dynasty**  
— in the Focus of Cheong-Dae —

**Young-Jae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Instructor of Tae-Jun University  
(1997. 12. 9 접수)

**Abstract**

The culture of makeup has early developed in China. Especially, beautiful eyebrows were the symbol of a beauty. This study is related to fashionable Cheong-Dae in Han Dynasty.

In Han Dynasty, women painted thier eyebrows with blue color in a different color from former periods. This fact has close connection with the bordering countries on Western China. Together with Hu fashion having been in fashion during trading directive with Western China women has seemed to use Cheong-Dae for their makeup in Han Dynasty. In Hand Dynasty, Ferghana women had very often used it for their makeup. And it had produced in Ferghana, Jaguda, Kashkar. In Tang Dynasty, it has been said that Persia was the best. Let's take a look at the producing method. Soak indigo plants in water add lime and stir it up, then bubbles are formed. They are called it as Cheong-Dae. Nearly, they are produced in the course of indigo dying. So we can see inflowing course of Cheong-Dae into China through the history of Indigo dying.

We can guess the use of Cheong-Dae in Egypt. Indeed, Nile Blue is used for the protection their access from insects as well as effect of coolness visually. This guess is very reasonable because the fact is considered that some people dye with indigo color by the way of sedimentation in Peniasula of Sinai. Also, the PH of Cheong-Dae is about 7. So, it does no harm in skin and its color is dark blue. Cheong-Dae has effects of insecticide and removal of fever. Cheong-Dae that had been used in Peniasula of Egypt seems to have been carried into China through Silk Route. And by trial to make Cheong-Dae it is proved that its ingredient is plant.

**Key Words:** Han Dynasty, Eyebrows, Cheong-Dae; 한대, 미대, 청대

## I. 서 론

미대(眉黛)는 눈썹먹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목(眉目)이라고도 하며 검정색으로 하였다. 먹이나 목탄으로 직접 눈썹을 그리거나 식물을 태운 재에 기름을 개어 술로 그리기도 하였다<sup>1)</sup>. 그러나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눈썹먹을 검정색 외에도 그때그때의 유행에 따라 청색·녹색·황색 등으로 하였다. 특히 漢代에서는 그 이전 왕조와는 달리 청색으로 눈썹먹을 하였는데, 이는 漢武帝의 적극적인 西域交易를 통하여 유입된 靑黛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대에서 유행한 청대(靑黛)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그 성격이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志田不動麿 역시 漢代에서 유행한 靑黛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즉 靑黛가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 확실치 않다고 하였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漢代에서 사용된 靑黛에 대해 문헌적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과 사용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청대가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 II. 黛의 정의와 기원

《玉篇》에서 “대(黛)”는 부녀들의 눈썹을 그리는 검은색 물건이라 하였고<sup>3)</sup>, 《說文》에서는 黛를 “눈썹 그리는 먹”이라 하였다<sup>4)</sup>. 또 《釋名》에서는 黛를 “눈썹을 없애 버리고 그림으로서 그를 대신하는 것”이라 하였다<sup>5)</sup>. 즉 黛는 눈썹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 먼저 본인의 눈썹을 없애고 검은색 먹 등으로 유행에 따라 눈썹의 모양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눈썹을 가꾼 것은 戰國때 이미 존재하여

《楚詞》에 “분백대흑(紛白黛黑)”이라 하여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하고 눈썹은 검은 색으로 했고<sup>6)</sup>, 秦代에 이르러서도 眉黛는 더 널리 보급되었다. 漢代의 眉黛는 더 보편화되어 《漢書》에 의하면 장창(張敞)이 그 아내의 눈썹을 그려 주었는가를 묻는 宣帝(BC 37~49)의 물음에 “방안에서 눈썹을 그려준 적이 있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sup>7)</sup>. 또 《後漢書》에 “마황후는 눈썹을 그리지 않는다. 단지 왼쪽 눈썹 끝이 조금 없어 좁쌀같이 그려 넣었을 뿐이다”고 있다<sup>8)</sup>. 눈썹을 그리지 않는 것은 마황후 개인의 품격이라고 묘사한 것으로 미루어, 부녀자들의 眉黛 사용이 보편적이었음을 반증해 준다. 이에 비해 당시 부녀들은 눈썹을 도톰하게 그리는 것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玉篇》에 “장안에서 광미(廣眉)가 유행하자 일반에서 이를 모방하여 이마 절반 정도로 눈썹을 넓게 그리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고 묘사하였다<sup>9)</sup>.

漢代의 눈썹화장은 어떤 색이었는데 살피보면, 《鹽鐵論》에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하고 눈썹은 청색으로 그렸다고 하였다<sup>10)</sup>. 이것으로 漢代에서 이전의 다른 왕조와는 달리 眉黛로 흑색뿐 아니라 청색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색으로 눈썹을 그리는 것[靑黛]은 중국에서 보다 오히려 인근 다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靑黛는 西域諸國에서 그 생산과 사용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발한나국(拔汗那國: Farghana)<sup>11)</sup>에서는 다른 화장은 하지 않아도 靑黛로 눈화장만은 꼭 하였다고 한다<sup>12)</sup>. 그 외에도 제빈(尉賓: Jaguda)에서도 靑黛가 많았으며<sup>13)</sup>,

6) 《楚詞》 《戰國策》 《韓非子》에 눈썹에 대한 묘사가 있음.

7) 《漢書》 卷 76 《趙尹韓張兩王傳》, 322; 鼎文書局(1991)

8) 《後漢書》 卷 10 上 《馬皇后紀》, 408.

9) 《後漢書》 卷 24 《馬援列傳》, 853; 鼎文書局(1991)

10) 桓寬 《鹽鐵論》 卷 7 《國疾》, 13; 臺灣商務印書館(1983)

11) 樂史 《太平寰宇記》 卷 181 《西域》, 15~6: 判汗國 혹은 鍍汗國이라 하며, 옛 渠搜國인. 疏勒國 서쪽에 있음; 《隋書》 《西域》에는 大宛의 북쪽과 경계한다고 되어 있다.

12) 杜佑 《通典》 卷 192, 2 “婦人不飾金粉, 以靑黛塗眼而已”; 《太平寰宇記》에는 “婦不飾鉛粉, 以靑黛眼而已”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3) 《隋書》 卷 83 《西域》, 1857: 漢代의 尉賓은 즉 漕國이며, “土多靑黛”

1) 먹에는 송연먹과 달개비꽃잎을 태운 먹이 있고 목탄에는 버드나무·굴참나무·밤나무목탄이 있다. 이외에 목화꽃을 태운 재에 참기름을 개고 유연·홍화·금가루를 배합하여 술로 눈썹을 그렸다.

2) 志田不動麿(1929), 《支那に於ける化粧の源流》《史學雜誌》 40 卷 9 期, 57-58.

3) 《玉篇》 卷 21, 4 “眉之黑物也”; 四部叢刊正編 臺灣商務印書館(1979)

4) 許慎(漢) 《說文》 卷 10, 58: 畫眉墨也; 黎明文化(1991)

5) 《釋名》 卷 4, 36 “滅眉毛去之, 以此畫代其處也”; 四部叢刊正編, 臺灣商務印書館(1979)

집국(劫國: Kashkar)에서도 靑黛가 생산되었다<sup>14)</sup>.

### III. 靑黛의 유입

靑黛가 중국에서 사용된 것은 “얼굴을 하얗게 분칠하고 눈에는 청색으로 칠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내용이 기록된 <鹽鐵論>으로 미루어 後漢 때 이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靑黛는 漢이 서역과의 교역을 시작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 李時珍에 의하면 靑黛는 파사(波斯: Persia)의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고, 만약 파사의 靑黛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중국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靑黛는 중국에서 먼저 제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된 후에 비로서 사용·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漢 이전에는 黛에 대한 기록은 주로 黛의 모양을 기술했으나 漢代에 이르러서 색상이 표기된 黛의 명칭이 나타난다. 즉 청대(靑黛) 흑대(黑黛) 등의 명칭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漢代 이전에는 眉黛의 색이 흑색이었고 漢代에 이르러 청색이 더해진 것이라 하겠다.

중국과 서역이 교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漢 무제(武帝)의 적극적인 서역 경영에 의한 것이었다. 무제가 장건(張騫)을 파견하여<sup>15)</sup> 교통로를 개척한 후에 비로서 서역과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靑黛 역시 다른 수입품들과 함께 동서교역로인 Silk Road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靑黛를 사용한 나라들인 발한나국이나 계빈·집국·파사 모두 동서 무역로에 위치했던 나라들로, 이들이 사용했던 청대는 이집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또 파사(Persia)의 것이 가장 좋다고<sup>16)</sup>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오래 전부터 파사에서 수입해 사용한 것을 보여 준다. 靑黛는 눈화장품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약재로도 사용되어 열창이나 악종·급창 등의 치료에도 사용되었다<sup>17)</sup>. 파사의 靑黛를 “외국의 남전화(藍靑花)”라고 하고, 파사의 것을

구하지 못할 때는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대체해도 치료는 된다고 하였다<sup>18)</sup>. 만드는 방법은 藍(쪽풀)을 물에 하룻밤 담근 후, 그 물에 석회를 넣고 저어 생기는 거품을 걸어 그늘에 말리면 된다고 하였다<sup>19)</sup>. 이 과정은 쪽염제조의 한 부분으로, 특히 침전법에 의한 쪽염에서만 생성된다. 따라서 쪽염의 역사와 더불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하겠다.

쪽염의 역사는 기원전 3천년 경까지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 미이라를 감싸고 있던 mummy cloth가 쪽염으로 염색되었다<sup>20)</sup>. 또 Metropolitan 박물관 조사에서도 미이라의 linen은 염색처리된 것이며, 특히 푸른색은 indigo로 염색된 것이라 하였다<sup>21)</sup>. 이 때 이용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시나이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쪽염이 침전법에 의한 것으로 미루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쪽염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또 靑黛는 침전법에 의해서만 생성되므로 이집트에서 침전법을 이용해 쪽염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靑黛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집트에서 靑黛를 眉黛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즉 이집트의 Nile Blue는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뿐 아니라 곤충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sup>22)</sup>. 그리고 이집트의 Nile Blue는 Lapis Lazuli(靑金石)라고 하는 준보석을 갈아 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3)</sup>.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이집트 유물에서 눈가가 청금석으로 처리된 것을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청금석을 갈아 보면 질은 남색이 아니며, 그 자체에 접착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눈가에 칠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착물이 첨가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청금석에는 방충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靑黛의

18) *ibid*, 80~81

19) *ibid*, 79

20) *Encyclopaedia Britannica* (1993) vol. 15, 브리케니아·동아일보사, 585

21) Christine El Mahdy (1989) *Mummies Myth and Magic in Ancient Egypt*, Thames & Hudson, 68;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조사에 의하면 11 왕조의 Wah미이라에 linen을 염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indigo로 염색된 것이라고 함.

22) 정홍숙(1986) <복식문화사> 교문사, 29

23) <인류생활사>(1994), Reader's Digest·동아출판사, 33.

14) <太平實字記> 卷 186 <西戎>, 13: 파미르고원에 위치하며 “氣候多熱…出靑黛”

15) 한무제는 大月氏와 동맹을 맺어 흉노를 격파하기 장건을 파견하였다. 장건의 1차 서방파견은 B.C. 139~126년에, 2차 파견은 B.C. 115년에 이루어졌다.

16) 李時珍 <本草綱目> 卷 16, 80~81; 臺灣商務印書館(1983)

17) 李時珍, 80

경우 방충효과는 물론 열을 식히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볼 때 이집트에서 靑黛를 眉黛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靑黛의 색상은 물론 이집트 특유의 Nile Blue와 같은 짙은 남색이다. 또 靑黛는 중성(pH 7 정도)으로 피부와 직접 닿아도 무해하므로<sup>24)</sup> 眉黛로 사용해도 안전했으리라고 본다. 또 그 자체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눈가에 칠할 때 전혀 다른 첨가물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칠한 후에 수분이 증가하면 Nile Blue와 같은 짙은 남색만 남는다. [도 1]은 12왕조(BC 1991~1786) 때 제작된 Unkhhotpe의 관에 그려진 초상이다. 그 눈썹이 짙은 남색으로 처리되어 있다. 핫셉수트 여왕의 두상(Osiris head of Hatshepsut)은 18왕조(BC 1480년) 때 석회암에 채색하여 제작된 것이다. 눈썹과 눈가 주위가 짙은 남색으로 되어 있다[도 2]. 또 Louvre 소장인 Senynefer & Hatshepsut(BC 1410년)에서도 검은 머리색과는 다른 군청색 눈썹과 eyeline을 볼 수 있다[도 3]. 이들은 다른 조상과는 달리 짙은 남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靑黛가 아닐까 한다.



[도 2] 핫셉수트 여왕의 두상(고대 이집트문명, p. 61)



[도 1] Coffin of Ukhhotpe(*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 41)



[도 3] Senynefer & Hatshepsut(*Treasure of the Louvre*, 도 55)

이집트에서 방충효과를 거둘 수 있는 靑黛를 눈화장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또한 시나이반도에서 제작되던 이집트의 靑黛가 당시의 동서무역<sup>25)</sup>을

24) 쪽을 우려 낸 액체는 pH가 5 정도였으나 靑黛의 pH는 7 정도로, 직접 피부에 닿아도 아무런 해가 없었다.

25) <史記> 卷 123 에 의하면 漢代의 동서무역은 매우 활발하였다. 무제 때 알렉산드리아의 善眩人(마술사)가 장안에 들어와 공연을 하였으며, 曆法도 바빌로니아의 영향을 받아 윤달을 9월과 10월 사이에 넣었다고 한다. 또 중국의 비단은 멀리 大秦(로마)에까지 수출되었다.

중계하던 파사, 발한나국, 계빈, 겁국 등 서역 여러 나라에 전해지고 사용되었고, 또 장견에 의해 개척된 Silk Road를 통해 중국에도 전하여져 호풍(胡風)의 유행과 더불어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사용된 것이 아닐까 한다.

### III.靑黛의 제조

靑黛는 쪽염의 중간산물로, 그 제조방법은 쪽염 제조 방법과 같다. 쪽염의 제조법은 크게 자연법·침전법·발효법의 세 종류가 있으나, 이 중靑黛가 중간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것은 침전법에 의한 방법 한 가지 뿐이며 자연법과 발효법에 의해서는靑黛가 생성되지 않는다.

쪽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靑黛제조에 사용되는 쪽풀 역시 한가지 품종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남(蓼藍)을 사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유구남(琉球藍)을 사용한다<sup>26)</sup>. 중국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피남(槐藍)과 마남(馬藍), 요남 등이 사용된다<sup>27)</sup>. 어떤 품종의 쪽풀이 이용되는가는 큰 차이가 없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쪽풀을 주로 이용한다. 이같은 이유는 쪽풀이 일반 염료용 식물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염료용 식물은 그 자체에 어떤 화학적 상태로든지 색소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쪽풀류는 그 자체에 색소물질 대신 인디칸(INDICAN)이라고 하는 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sup>27)</sup>. 이 인디칸을 인디고(INDIGO)로 유도해 내는 것이 염색의 원리이며<sup>28)</sup>, 그 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靑黛인 것이다. 따라서 쪽염에 사용되는 쪽풀의 품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쪽풀류에 함유된 인디칸의 농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침전법이 같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방법을 통해 청대 제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쪽염을 할 때 주로 요남을 사용한다. 여기에 첨가되는 회분은 굴껍질가루(여회(蠣灰))가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청대의 재료로 쓰이는 요남과 굴껍질가루에 관해서 설명을 하

고, 이를 통하여 중국에서 사용된 청대가 식물성임을 밝히고자 한다.

## 1. 재 료

### 1) 요남

요남(*Persicaria tictoria*)은 마디풀과(Polygonaceae)에 속하는 중국이 원산인 1년생초[도 4]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된다. 요남은 기후가 온화하고 다습한, 배수가 잘되는 건조질(乾砂質) 토양에서 성장한다. 3월경 파종하면 7월 중순경에 키는 50~70 cm 정도로 자라며,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홍자색을 띤다. 잎은 어긋나기로 자라며 잎 모양은 긴 타원형 혹은 난형이며, 잎끝은 좁다. 잎가장 자리는 밋밋하다. 짧은 잎자루가 있으며, 줄기를 감싸는 얇은 턱잎(托葉)의 가장자리에 잔털이 있다. 8~9월 경이 되면 붉은 색의 작은 꽃이 줄기 끝에 밀착하여 길게 이삭형(穗狀)을 이루면서 핀다. 화피(花被)는 길이 2~2.5 mm로서 다섯으로 깊이 갈라지며 열편(裂片)은 도란형(倒卵形)이다. 수술은 6~8개이고 화피보다 짧으며 수술대 밑에 작은腺이 있고 꽃밥은 연한 홍색이며 지방(子房)은 계란같은 타원형으로 끝에 3개의 암술대가 있다. 수과(瘦果)는 화피로 싸여 있고 세모진 난형이며 길이 2 mm 정도로서 흑갈색이다. 초록색 잎은



[도 4] 蓼藍(대한식물도감, p. 310)

26) <染織の美> 18(1982, Summer), 京都書院, 108

27) 難波恒雄(1994), 230

27) 김성훈, 임용진(1994) <기능성색소> 경북대, 79

28) ibid, 80

말리면 남색으로 변한다<sup>29)</sup>.

2) 굴껍질가루[礪灰]

회분은 지역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굴껍질로 만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다. 여분(蠣粉) 혹은 석화분(石花粉)이라고도 하며 내륙지방에서도 특별히 굴껍질을 구입해 사용할만큼 굴껍질을 가장 좋은 회분으로 여겼다. 굴껍질을 물기없는 큰 용기에 넣고 열을 가한다. 굴껍질이 충분히 달구어지면 불을 빼고 그 달구어진 굴껍질에 물을 끼얹고 뚜껑을 덮어 둔다. 그러면 굴껍질은 급속한 온도 변화에 의해 분쇄되어 손으로 만지면 그대로 바스러진다.

2. 제조과정

요남이 50~70 cm 정도로 자라면 베어 줄기채 항아리에 넣고 물을 채워 늘려준다. 12시간 정도 지나 한 번 뒤집어 주고 24시간이 지나면 쪽을 건져 내고 굴껍질가루를 넣고 횃대(혹은 덩그레라고 함)로 저어준다(덩그레질이라 함). 덩그레질에 의해 산소의 공급이 충분해지면, 푸른색 거품이 인다. 이것이 바로 첫번째 “꽃물”로 靑黛를 말한다. 이 거품을 걷어 내어 바로 사용하거나 그늘에서 말려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靑黛의 제조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50~70 cm 정도의 다 자란 요남을 베어서 항아리에 넣고 물을 가득 채운다. 하루정도가 지나면 잎에 있던 색소가 빠져나와 물이 푸른색을 띠우면 요남 줄기를

모두 걷우어 낸다.

② 항아리에 있는 물을 색은 앞줄기 등이 섞이지 않게 하여 다른 항아리에 옮겨 담는다.

③ 우려낸 물로 미리 준비한 굴껍질에 섞어 액으로 만들어 2의 용액에 붓는다. 이 때의 배합은 쪽물 대우 10말에 굴껍질가루 2되의 비율로 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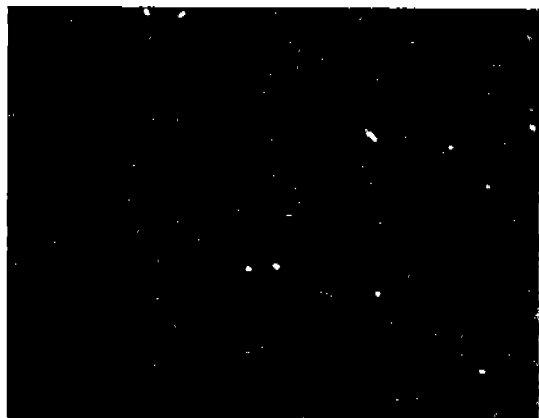
④ 이를 덩그레로 강하게 저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한다.

⑤ 계속 저어 주면 초록색의 용액이 짙은 남색이 되며 이 거품을 걷어 말린다. 이 때 만들어지는 靑黛의 양은 500~600 g 정도가 된다[사진 5].

IV. 결 론

靑黛는 漢代에서 유행된 부녀의 눈화장품으로, 서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문헌기록에 ‘靑黛’가 등장하는 것은 한 무제 때 장건이 서역 무역로를 개척한 이후이며, 발한나국(Farghana), 계빈(Jaguda) 및 점국(Kashkar) 등에서는 眉黛로 사용되었다. 또 파사(Persia)에서 생산된 것을 최고로 여겼다. 漢代에서 사용된 靑黛는 이들 국가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들 국가가 서쪽으로는 조지(條支: Syria), 알렉산드리아, 대진 등에 중국의 비단울 수출하였던 무역관계로 미루어 고대 이집트의 Nile Blue가 청대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중국에서 靑黛의 유행은 漢 때 시작되었는데, 이는 서역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 후 唐代에서도 호풍의 유행과 함께 크게 유행되어 화전(花鈿)에도 청대를 사용할 정도였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靑黛사용은 유물이나 회화자료에서는 찾지 못하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本草綱目>에 기록된 방법과 우리나라의 침전법을 토대로 청대를 직접 제조하여, 청대가 식물성임을 밝힐 수 있었다. 靑黛는 호풍의 약화와 더불어 중국에서의 유행이 점차 약화되었고, 눈화장품보다는 약재로서의 효능이 강조되어 해독·열창·악종 등의 치료제로 그 용도가 변했다.

참 고 문 헌



[도 5] 靑黛

29) 李昌福(1982)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310 : <브리케니아대백과사전>(1993), vol. 20, 288

劉熙, <釋名>, 臺灣商務印書館, 1979.  
顏師古, <漢書>, 鼎文書局, 1991.

- 范曄, <後漢書>, 鼎文書局, 1991.
- 桓寬, <鹽鐵論>, 臺灣商務印書館, 1983.
- 杜佑, <通典>, 臺灣商務印書館, 1983.
- 魏徵, <隋書>, 鼎文書局, 1990.
- 樂史, <太平寰宇記>, 臺灣商務印書館, 1983.
- 李時珍, <本草綱目>, 臺灣商務印書館, 1983.
- 김성훈·임용진, <기능성색소>, 경북대, 1994.
- 陸昌洙·安德均, <現代本草學>, 고문사, 1972.
-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82.
- 정홍숙, <부식문화사>, 교문사, 1986.
- 브리케니아·동아일보사편, <브리케니아대백과사전>, vol. 15, 1993.
- Christine El Mahdy, *Mummies Myth and Magic in Ancient Egypt*, Thames & Hudson, 1989.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 福武書店, 1987.
- Michel Laclotte, *Treasures of the Louvre*, Abbeville press, 1993.
- <染織の美> 18, 京都書院, 1982, Summer.
- 難波恒雄, <和漢藥百科圖鑑 II篇>, 保育社, 1994.
- 志田不動庵, <支奈に於ける化粧の源流>, <史學雜誌>, 40卷 9期, 1929.